



# 영성개발과 교회성장

*Spirituality Development and Church Growth*

-마 28장 16-20을 중심으로-

임영호<sup>\*)</sup> (고산대학교 신학과 교수)

## 목차

1. 서론 (Introduction)	112
2. 영성개발과 교회성장의 의미	113
3. 영성개발과 교회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115
1) 영성개발과 교회성장의 궁극적인 목표: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	116
2) 영성개발과 교회성장 계획의 선포자: 예수 그리스도	118
3) 영성개발과 교회성장을 위한 세 단계	120
4. 영성개발과 교회성장의 직접적인 목표	134
5. 영성개발과 교회성장의 계획에 따라 사역하는 자에게 주어진 약속	145
6. 결론 (Conclusion)	160

## 요약

## 선교적 교회론에 대한 고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지상명령(the Great Commission)은 일반적으로 선교명령(Mission Mandate)으로만 알려져 왔지만 이것은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구속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신 영성개발과 교회성장의 헌장이요 이를 위한 명령의 말씀이기도 하다. 이러한 새로운 관점에서 이 명령을 새롭게 재조명해 보는 것은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사역자들과 구성원들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올바른 성경적인 근거를 발견하여 그 근거 위에서 우리의 사역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초대교회와 같은 놀라운 영성개발과 교회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이 사역에 적용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시대의 영성신학자로 널리 영향을 끼치고 있는 달라스 윌라드(Dallas Willard)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영성개발과 교회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지만 그 내용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적용에 있어서는 미흡함을 드러내었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 점을 염두에 두면서 5가지 종합적인 요소들(예배, 사랑, 교제, 양육, 전도)을 검토하고 그 정확한 이해와 적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되어진 것이다.

이상의 5가지 요소들 중에 사랑과 교제와 양육의 3가지 요소들은 성숙한 제자를 삼는데 기본적인 핵심요소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3가지 요소들은 예배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온전한 예배의 단계에 이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는 가운데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며, 이 제자는 그 삶과 사역을 통하여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므로 제자삼는 사역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진행이 되어지는 것이다.

릭 워렌(Rick Warren)은 교회의 5가지 목적을 대계명(마 22:36-40)에서 예배와 사랑의 실천의 두 요소를 이끌어 내었으며, 대사명(마 28:19-20)에서 교제와 양육과 전도의 나머지 3요소들을 이끌어 내므로 두 본문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 5가지 요소들이 모두 대사명(마 28:16-20)의 본문에 이미 내포되어 있음을 밝히게 되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릭 워렌이 언급하고 있는 5가지 요소들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인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영성개발과 교회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가 되어진다는 것이 본고의 중요한 결론이 되어질 것이다. 이와 동시에 영성개발과 교회성장은 불가분리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리스도인 개인의 영성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참된 교회성장이 가능하게 되며, 모든 족속으로 제자삼는 선교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결론이 되어진다.

이상과 같이, 마 28장 16-20절의 내용이 보여주는 영성개발과 교회성장을 위한 주님의 마스터플랜을 따라 가장 효과적으로 사역한 주님의 제자들이 바로 사도들과 초대교회성도들이었다는 사실을 사도행전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증거해 주고 있다. 놀라운 것은 오순절 성령강림의 결과로 이루어진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을 묘사하고 있는 행 2:40-47에서 이미 이 5가지 요소들이 빠짐없이 나타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사역을 교회의 머리되신 주님께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요구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계획을 따라 사역에 임하므로 주님의 약속 그대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의 역사를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오늘날의 교회사역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주제어:

영성개발, 교회성장, 지상명령, 예배, 사랑의 실천, 세례, 교제, 양육, 전도, 제자, 종족집단

## Spirituality Development and Church Growth

Prof. Dr. Young-Hyo Im

Though the risen Jesus Christ's the Great Commission was known as the Mission Mandate, this is God's plan for the growth and prospering of local churches as well as spiritual development of Christians. From this new perspective, reilluminating this Mandate has an important meaning for contemporary church ministers and members.

When our ministry has the fitting biblical basis, we can apply it to our context of ministry and do rightly our ministry with the conviction that like the early church remarkable church growth and spiritual development can be accomplished.

Even though a spirituality theologian, Dallas Willard suggested that Jesus' the Great Commission is God's plan for the growth and prospering of local churches as well as spiritual formation in the local congregation, it seemed that he did not present sufficient analyses and applications of the content. Considering this point, this paper reexamines five elements, that is, worship, practice of love, fellowship, nurture, evangelism, and deals with the right understandings and applications.

Among the five elements, the basic core elements can be practice of love, fellowship and nurture. These three elements should be done through the larger circle of worship and ultimately reached to the stage of sound worship. In the process of doing these elements, church members can be mature disciples of Jesus Christ. Accordingly, they can bear fruits of evangelism and the ministry of making disciples can be

achieved continually until the coming of the Lord.

Rick Warren extracted two elements of worship and practice of love from the Great Commandment (Mt. 22:36-40) and the other elements of fellowship, nurture and practice of love from the Great Commission (Mt. 28:19-20). Thus he combined them. However, this paper shows that all these five elements are in the Great Commission (Mt. 28:16-20). So it is an important conclusion of this paper that these five elements are the essential ones for the spiritual development of Christians and church growth. At the same time, the spiritual development of Christians and church growth have an indispensable relationship to each other. When the spiritual development of a Christian can be properly achieved, the true church growth can be possible and the ministry of making disciples of all nations can be occurred continually.

According to the master plan of the Lord for the spiritual development of Christians and church growth, the apostles of Jesus and the early Christians worked effectively. The history of the Book of Acts proves this concretely. Also it is amazing things that the texts of Acts 2:40-47 which describe the characteristics of the Jerusalem church show these five elements.

In conclusion, today's Christians and church ministers should remember that the Lord as the head of His church requires this ministry from us. Thus contemporary Christians and church ministers should become ones who work according to the Lord's plan and witness the work of the blessings of Immanuel, that is, being with us always to the very end of the age.

### Key words:

spirituality development, church growth, the Great Commission, practice of love, baptism, fellowship, nurture, evangelism, disciple, people group

## 1. 서론

(Introduction)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고 교회사역의 목표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가 되어지는 데 있음을 밝혀주고 있는데, 이는 그리스도인의 영성개발이 중요한 과제임을 암시해 주고 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교회의 구성원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 개인의 영적 성장 즉 영성개발이 교회성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영성신학자인 달라스 윌라드(Dallas Willard)는 일반적으로 선교명령, 혹은 지상명령으로 알려져 있는 마 28장 18-20절의 내용을 하나님의 영성개발을 위한 계획(God's plan for spiritual forma-

tion)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이야말로 교회전반은 물론 각 지역 교회의 성장과 형통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것은 지역교회의 영성개발을 위한 그분의 계획이다”라고 언급한바 있다.<sup>2)</sup> 그는 “1세기 교회의 교회성장은 마 28:19-20의 교회성장 계획을 따르면서 생겨난 결과였다”고 피력하고 있다.<sup>3)</sup>

미국의 목회자인 론 킨케이드(Ron Kincaid)는 “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를 삼으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미심장하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성장에 이르지 못했다고 믿는다”라고 마 28장의 지상명령과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역설한바 있다.<sup>4)</sup> 그는 그리스도인이 제자삼는 사역에 참여하므로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과 기쁨과 약속들에 대한 새로운 체험을 하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sup>5)</sup> 따라서 본고에서는 영성개발과 교회성장의 측면에서 마 28장 16-20절의 지상명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오늘의 교회사역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 2. 영성개발과 교회성장의 의미

(Meaning of Spirituality Development and Church Growth)

달라스 윌라드(Dallas Willard)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영

1) 고신대학교 및 동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석사(M.Div.)학위 취득. 미국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에서 신약학으로 신학석사(Th.M.), 선교학 전공으로 선교학 박사(D.Miss.), “사도행전에서의 선교와 교회성장의 기초에 관한 선교학적 연구”로 선교신학을 전공하여 철학박사(Ph.D.)학위 수여받음. 현재 고신대학교 신학과에서 실천신학 및 선교학 담당교수인 동시에 고신대학교 선교대학원에서 교회성장학 주임교수로 사역하고 있으며 개혁주의 교회성장학회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사도행전에서의 선교와 교회성장」(문란출판사), 「성경교사와 설교자를 위한 데살로니가전서 강해연구」(도서출판 영문), 「건강한 교회, 행복한 그리스도인, 존경받는 사역자」(도서출판 영문), 「유다서 강해와 설교」(도서출판 영문), 논문으로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오순절 부흥」 「선교와 교회성장의 원천으로서의 부흥」(영문), 「초기 한국교회의 성장요인」 「바울의 선교사역에 대한 고찰」 「성육신적 전도방법에 대한 고찰」 「크리스천 리더십의 원리」 「효과적인 기독교 교육의 원리」 「효과적인 사역의 모델로서의 담사역에 관한 연구」 「영적 지도력과 사역개발」 「문화적 상황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과 적용」 「부흥의 원리에 관한 연구」 등 다수가 있다.

yhim@kosin.ac.kr

2) Dallas Willard, *Renovation of the Heart*, (Colorado Springs, CO.: NavPress, 2002), p. 240.

3) Dallas Willard, *The Spirit of the Disciplines: Understanding How God Changes Lives*, (New York: HarperCollins Publishers, 1988), p. 260.

4) Ron Kincaid, *A Celebration of Disciple-Making* 「제자삼는 교회」, 생명의 말씀사, 1993, p. 16.

5) Ibid., pp. 30-31.

성개발이란 그리스도 자신의 내면을 닮아가는 것으로 성령의 주도로 인간 자아의 내면세계를 개발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정의하면서, 영성개발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며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갈 4:19)이야말로 기독교 영성개발의 영원한 표어이다"라고 말하고 있다.<sup>6)</sup> 또한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성개발의 결과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며 "그리스도 안의 영성개발은 자아승배에서 자아부인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sup>8)</sup>

더 나아가 그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영성개발을 위하여 지역교회들이 전적으로 헌신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성개발을 지역교회의 유일한 최고 목표로 삼는 것"이 교회가 설정해 나가야 할 올바른 방향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sup>9)</sup> 이러한 영성개발이 지역교회의 구심점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에 대한 비전에 사로잡혀야 하고 그의 성숙한 제자를 삼는 것을 교회의 중심사역으로 삼겠다는 분명한 의지가 있어야 하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sup>10)</sup>

달라스 윌라드(Dallas Willard)에 의하면, 가장 성공적인 전도사역과 진정한 교회성장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를 가든지 어두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게 해주는 내면의 변화작업인 영성개발이 이루어질 때에 가능하게 되므로 교회성장은 영성개발의 자연스러운 결

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오늘날의 교회사역자들이 여기에 집중하지 못할 때 결국로 벗어나 소금과 빛으로서의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지고 실패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지만, 영성개발과 제자도의 길을 따르게 되어질 때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끌 수 있게 되므로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교회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미국 교회성장학회 회장으로 사역한바 있는 게리 맥킨토시(Gary McIntoch)교수는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성장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마태복음 28장 19-20절에 나오는 지상 최대 명령의 실현에 있음을 알고 있지만 아직도 교회성장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는 단지 교인 수 늘리는 기술, 방법 또는 모델들로 이해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sup>11)</sup>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교회성장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되었을 때에 그것의 의미는 충실한 제자 양육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그들을 개 교회에 적응 시키며, 또 그리스도가 명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교회가 수적인 그리고 영적인 성장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교회성장이라는 의미는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없던 사람들을 그와의 개인적인 교제로 인도하고 또 그들을 책임감 있는 교회 구성원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sup>12)</sup>

### 3. 영성개발과 교회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God's Plan for Spirituality Development and Church Growth)

6) Dallas Willard, op. cit., 2002, pp. 22-23.

7) Ibid., p. 31.

8) Ibid., p. 77.

9) Ibid., p. 235.

10) Ibid., p. 244.

11) Gary L. McIntosh, *Biblical Church Growth*, (Grand Rapids: Baker Books, 2003), p. 17.

12) Ibid., p. 18.

### 1) 영성개발과 교회성장의 궁극적인 목표 :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

마 28장 16-20까지의 지상명령은 놀랍게도 예배의 상황(context) 속에서 주어진 주님의 대선언의 말씀임을 서두에서 밝혀주고 있다. 마이클 그린(Michael Green)은 “대위임령은 경배로부터 솟아 나온다(마 28:9, 17). 마리아와 제자들이 선교하러 가야 한다는 동기를 부여받은 것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경외감으로 엎드려서 경이와 사랑과 찬양에 몰두했을 때였다. 이러한 사실은 지금도 변함없다. 전도는 예배로부터 솟아 나오는 법이다”라고 적절히 말하고 있다.<sup>13)</sup>

그러나 놀랍게도 경배하는 자와 의심하는 자가 주님이 부르신 신앙공동체 안에 함께 공존하였던 것을 보여주고 있다.<sup>14)</sup> 이 갈릴리에서의 모임에는 예수님의 열 한 제자들 외에 마 28장 10절에서의 다른 형제들과 사도 바울이 고전 15장 6절에서 언급하고 있는바 오백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신 사건이 바로 이 때에 되어진 만남의 사건을 가리킨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여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을 주저했던 자들은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이 예수님이 과연 이전에 그들이 만났던 그 예수님이 맞는지에 대한 의심을 가졌을 수도 있을 것이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가 다시금 부활하였다는 사실을 즉각적으로 믿기가 어려웠던 자들도 있었을 것이다.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였고(눅 24:13-35), 예수님

의 제자 중 도마도 다른 열 제자들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바로 믿지 못하였으며(요 20:24-25), 디베랴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으나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였던 것(요 21:1-4)들을 고려할 때에 갈릴리에 모여든 많은 무리들 중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즉시 믿지 못하고 의심하여 경배하는 것을 주저하는 자들이 있게 되어진 것은 전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며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사건이 너무도 놀라운 것이었고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증거해 주고 있는 현상임을 역설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다. 이 의심하는 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앞으로 나아와 하시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른 제자들의 증거를 통하여 믿음과 온전한 경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주님의 지상명령은 의심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더 나아가 모든 족속이 주님을 경배하는 온전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존 파이프(John Piper)는 다음과 같이 역설하고 있다: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예배가 그 목표이다.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한 것이다... 모든 역사는 한 가지 큰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세상 열방 가운데 하나님과 그 아들을 뜨겁게 예배하는 것이다... 그 이유 때문에 선교는 이 세상에서 인간이 행하는 두 번째로 위대한 활동이다... 선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넘쳐 흐르는 것이다... 그리고 예배가 선교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예배가 하나님의 목표이기 때문이다.”<sup>15)</sup>

그래서 개리 맥킨토시(Gary L. McIntoch)는 “교회는 달성되어야 될 수많은 계획들과 목적들을 가지고 있다.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전

13) Michael Green, *The Message of Matthew* 『마태복음 강해』, 김장복역, IVP, 2005, p. 474.

14) Leon Morris는 “의심하는 자”를 “주저하는 자”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합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The Gospel According to Matthew*, (Grand Rapids: Eerdmans, 1992), p. 744.

15) John Piper, *Let the Nations Be Glad!: The Supremacy of God in Missions*, (Grand Rapids: Baker Books, 1993), pp. 1, 15.

도, 성도들의 신앙교육, 말씀 전파, 정의 구현, 지도자 양성 등, 그와 다수가 있다. 하지만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 하나 밖에 없으며 그것은 바로 생명의 근원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다.<sup>16)</sup>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많은 일들 가운데서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의 직접적인 표현이다."<sup>17)</sup> 그러므로 앞으로 논의하게 될 영성개발과 교회성장의 모든 단계들도 이 예배의 정황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최종 목표를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에 둘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 2) 영성개발과 교회성장 계획의 선포자: 예수 그리스도

영성개발과 교회성장의 마스터플랜을 선포하시고 주도해 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 이 중차대한 사역을 수행해 나가야 하는 제자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기에 예수님께서서는 마 28장 18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자신의 신분을 명확히 밝혀주셨다.<sup>18)</sup>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한 제자들의 바른 이해와 확신은 주님의 분부하심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장애물과 난관들을 능히 극복하고 이 사역에 있어서 놀라운 진전과 확실한 성과를 보장받는 궁극적인 사역의 승리의 원천이 되어지기 때문이다.

제임스 모리슨(James Morison)은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심으로써 그는 하늘의 모든 수단을 사용할 수 있으며,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심으로써 땅위의 모든 사회 조직과 권세와 사람을 활용할 수 있다" 라고 언급하고 있다.<sup>19)</sup> 알버트 반즈(Albert Barnes)는 "여기에서 주님에게 모든 권세와 만물이 주어진 것은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구원하고 보호하도록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의 중보적 통치는 천사나 마귀, 그리고 주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에게까지 미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으며,<sup>20)</sup> 찰스 스펀전(Charles. H. Spurgeon)은 부활하신 주님이 모든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전능성을 소유한 것을 천명하신 것으로서 주님이 가지신 권세는 "자존의 권세, 창조자의 권세, 창조된 것을 유지하는 권세, 만들고 부술수 있는 권세,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 타도하고 세울 수 있는 권세,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세, 용서하고 징죄할 수 있는 권세, 주고 보류할 수 있는 권세, 선언하고 이룰 수 있는 권세, 한 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는 자기 교회를 주관할 머리로서 모든 권세가 부여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sup>21)</sup>

매튜 헨리(Matthew Henry)는 "그에게 이 권세가 주어진 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 하심이다(요 17:2). 즉 보다 효과있고 완전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에게 권세가 주어진 것이다" 라고 적절히 언급한 바 있다.<sup>22)</sup> 이와 같이,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우주 가운데

16) Gary L. McIntosh, op. cit., p. 51.

17) Wayne Grudem, *Systematic Theology: An Introduction to Biblical Doctrine*,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4), p. 1004.

18) Leon Morris는 본문에서 권세는 자신이 원하는데로 자신의 소유를 처분하거나 결정하거나 행동할 수 있는 권리와 선택의 자유를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The Gospel According to Matthew*, (Grand Rapids: Eerdmans, 1992), p. 745.

19) James Morison, *A Practical Commentary on the Gospel According to St. Matthew*, (London: Hodder & Stoughton, 1899), p. 623.

20) Albert Barnes, *Barnes' Notes on The New Testament Commentary* 「반즈 성경주석, 마태 마가복음」, 크리스찬서적, 1988, p. 653.

21) Charles H. Spurgeon, *The Treasury of the Bible* 「마태복음, 3」, 장부영 역, 보문출판사, 1979, p. 531.

22) Matthew Henry, *Matthew Vol. 3*, 「마태복음, 하」, 기독교문사, 1978, p. 626.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임의로 처분하시고 결정하시고 행동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모든 권한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에 참여하는 자들을 도우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자원을 제공하시고 친히 역사하심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실 것을 천명하신 것이다.

### 3) 영성개발과 교회성장을 위한 세 단계

#### (1) 가는 단계(사랑의 대면 및 사랑의 수고의 과정)

주님께서 세우신 영성개발과 교회성장의 마스터플랜의 첫 번째 단계는 가는 것이다. 가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을 실천하고자 하는 자가 바로 가는 자이다. 택하신 백성들의 구주가 되시고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를 내어 놓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찾아오신 것 자체가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 것처럼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주님께서 명하시는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는 행위는 바로 주님처럼 세계 도처에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영성개발과 교회성장을 위한 지상명령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고자 하는 뜨거운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모든 족속들을 대면하고 그들에게 조건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어주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것임을 “가서”라는 분사가 이를 시사해 주고 있다.

주님께서 이미 요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줄 알리라”고 제자삼는 사역을 담당하게 될 그의 제자들에게 필수적인 것이 무엇임을 말씀하시면서 사랑의 배경 속에서 이 사역이

이루어져야 함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다. 론 킨케이드(Ron Kincaid)는 그의 책 “제자삼는 교회”에서 “우리가 제자를 삼고자 할 때, 그 도구는 사랑이다. 새 계명은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전략이다. 새 계명에 대한 헌신이 없다면 지상명령의 성취도 없을 것이다... 나는 가족들, 직장이나 이웃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한가? 만일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있지 않다면, 세상의 이방인들을 사랑하는 데에는 거의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것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sup>23)</sup> 특히 고전 16장 14절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말씀은 그 무엇보다도 제자삼는 가장 중요한 사역에 적용되어야 할 필수적인 덕목임을 암시해 주고 있다.

영성개발과 교회성장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사역자가 아무리 전문적인 지식으로 무장되어 있고, 방법론에 있어서 효과적이고 탁월하다고 할지라도 사랑의 중심에서 사역하지 못한다고 할 때 그 모든 사역은 사실상 열매를 맺기가 어렵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론 킨케이드(Ron Kincaid)는 “사랑은 그리스도인이나 교회가 매력적이 되게 해준다. 사랑하는 교회는 따스함과 전염성있는 사랑을 발산하기 때문에 새로 나온 사람들이 그에 매혹된다. 사랑하는 교회는 성장한다. 왜냐하면 방문자들이 매혹을 당하고, 구성원들이 결코 떠나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라고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sup>24)</sup> 즉 모든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나아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대면과 수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영성개발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랑 가운데서 섬기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을 수 있어야만 한다.

이 사랑의 대면과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사역자에게 주어진 성령

23) Ron Kincaid, op. cit., p. 103.

24) Ibid., p. 105.



의 모든 은사들이 막힘없이 다른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풍성히 흘러나올 수 있는 통로가 구비되어질 수 있기에 고전 12장 31절에서는 사랑을 “제일 좋은 길”(the most excellent way)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발휘하여 자라가고 그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들의 은사들이 흘러나올 수 있는 사랑의 통로가 구비되어야 한다. 부르심의 받은 사역자가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나아가게 되어질 때 영성개발과 교회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사역대상자들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고후 5장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의 심령 속에 충만하였기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이방인들을 향하여 나아가므로 제자 삼는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수확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가서”라는 말씀을 통하여 실천하는 사랑, 수고하는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동기에서 사역에 참여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 그래서 프랭크 로바크(Frank Laubach)는 “은 세상을 얻기 위한 그리스도의 단순한 프로그램은 자신이 만지시는 각 사람마다 사랑의 자식을 만들어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달라붙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말한바 있다.<sup>25)</sup>

중국 선교의 개척자 허드슨 테일러가 어느 날 고국에 돌아와 선교사 후보생들을 만났을 때의 일이다. 특별히 중국 선교의 사명을 갖고 준비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질문을 했다. “그대들은 무엇 때문에 선교사로 중국에 가려고 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자신있게 대답했다. “예, 중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멸망을 향해 달려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또 다른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다. “그것이 중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허드슨 테일러는 그 대답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선교지에서 예상치 못한 역경과 어려움에 부딪치면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을 했다.

이 말에 한 사람이 그에게 되물었다. “그렇다면 선교사님은 무슨 동기로 중국에 가셨습니까?” 그러자 허드슨 테일러는 말하기를 “내게 있어서는 오직 하나의 동기 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다. 미국의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Moody Bible Institute)의 학장인 조셉 스토웰(Joseph M. Stowell)이 “사랑없이는 헌신도 없다”<sup>26)</sup>는 말을 한바와 같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분부하심 따라 모든 족속에게로 나아가는 헌신은 사랑 없이는 결코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 (2) 세례의 단계(삼위 하나님과의 연합과 교제와 임재체험과 헌신과 변화의 과정)

달라스 윌라드(Dallas Willard)는 마 28장 19절에 나타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라는 부분을 단지 물로 적셔주는 의식적인 세례예식에 대한 명령으로만 생각해서는 안되며 “의식은 실체에 들어가는 특별한 순간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영적으로 삼위일체의 임재 안에 적시는 단계에 나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다.<sup>27)</sup>

25) Frank Laubach, *Man of Prayer*, (Syracuse, NY.: Laubach Literacy International, 1990), p. 154.

26) Joseph M. Stowell, *The Final Question of Jesus* 「열정의 회복」, 박혜경 역, 디모데, 2004, p. 16.

27) Dallas Willard, op. cit., 2002, p. 267.

알버트 반즈(Albert Barnes)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sup>28)</sup>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자신이 이제는 삼위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세례는 성령을 통하여 정결케 되고 하나님께 거룩히 헌신한다는 사실을 상징하는 의식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sup>29)</sup> 크레이그 블롬버그(Craig L. Blomberg)는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것 혹은 이와 연합하게 됨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고,<sup>30)</sup> 스웨테(H. B. Swete)는 “교제와 헌신과 하나님의 충만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sup>31)</sup> 그래서 윌리엄 헨드릭슨(William Hendriksen)은 “그가 [예수님이] 그들의 유일한 삶이며, 그들의 유일한 빛이며 그들의 유일한 능력이라는 의미에서 그들은 그와 더불어 연합되어졌다”고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sup>32)</sup>

도날드 헤그너(Donald A. Hagner)는 세례를 주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다.<sup>33)</sup> 그러므로 세례는 지배권의 변경 즉 아담의 지배(율법, 죄, 죽음)로부터 그리스도의 지배(은혜의 지배)로의 변경을 가져왔다는 것이다(롬

5:17,20, 6:20). 따라서 매튜 헨리(Matthew Henry)는 “세례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보좌를 차지하려는 하나님과의 경쟁자인 세상과 육신을 포기한다는 단념의 맹세이다. 또한 세례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그의 것으로 맡겨 버리는 것, 즉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을 그의 뜻에 의해 지배받도록 하며 또한 그의 은혜 가운데서 행복을 누리게 되도록 맡겨버리는 충성의 맹세이다”라고 적절히 설명하고 있다.<sup>34)</sup>

마빈 빈센트(Marvin R. Vincent)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은 “성부 하나님을 그의 창조자와 섭리자로 인정하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유일한 중보자와 구속자로 또한 그의 삶의 모범으로 받아 드리며, 성령을 그를 성화시키시는 분과 위로자로 고백한다”고 말하고 있다.<sup>35)</sup> 달라스 윌라드(Dallas Willard)는 “그들 [예수님의 사람들은] 지혜, 아름다움, 능력, 선함 등 모든 측면에서 그 분이 참으로 매력적인 분임을 깨달아야 하며, 그리하여 끊임없이 그분의 임재 안에 있기를 구하며 인생의 모든 측면에서 그분의 인도와 지시와 도움을 받기를 바라야 한다. 왜냐하면 그 분이야말로 모든 시공을 초월하여 기도와 사랑의 공동체의 살아있는 머리이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하면서<sup>36)</sup> “실제적 관점에서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할 천국은 한마디로 예수와 지속적인 교제를 체험하는 것이다”라고 이 세례의 의미를 일깨워 주고 있다.<sup>37)</sup>

신약에서 세례는 죽음과 부활에 대한 상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그리스도인 자신을 동일화하는 것을 뜻한다(롬 6:4-5). 갈 3장 27절에 사도 바울은 “누구

28) John Murray는 마 28장 19절의 “이름”은 “그의 계시된 성격의 충만 안에서 인격을 상징한다”라고 말하면서 “세례의 중심적인 의미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Collected Writings of John Murray*, Vol. 2, (Carlisle, Penn.: The Banner of Truth Trust, 1977), pp. 372, 371. Marvin R. Vincent 역시 마 28장 19절의 “이름”은 인격(person)을 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Word Studies in the New Testament*, Vol. 1, (Grand Rapids: Eerdmans, 1985), p. 150.

29) Albert Barnes, op. cit.

30) Craig L. Blomberg, *The New American Commentary: Matthew*, (Nashville, Ten.: Broadman Press, 1992), p. 432.

31) R.V.G. Tasker, *The Gospel According to St. Matthew: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London: The Tyndale Press, 1961), p. 276.

32) William Hendriksen, *A Commentary on Galatians*, (London: The Banner of Truth Trust, 1968), p. 149.

33) Donald A. Hagner, *Word Biblical Commentary: Matthew 14-28*, Vol. 33B, (Dallas, Texas: Word Books, Publisher, 1995), p. 888.

34) Matthew Henry, op. cit., p. 631.

35) Marvin R. Vincent, *Word Studies in the New Testament*, Vol. 1, (Grand Rapids: Eerdmans, 1985), p. 150.

36) Dallas Willard, op. cit., 1997, p. 273.

37) Ibid., 1997, p. 280.

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구절에 관하여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James Montgomery Boice)는 “세례는 그리스도로 변화되는 동일시를 나타낸다”(Baptism signifies this transforming identification with Christ)고 말하면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처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To be “clothed with Christ” means to become like Christ)라고 설명하고 있다.<sup>38)</sup> 존 맥아더(John F. MacArthur) 역시 갈 3장 27절에서의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영적 동일시와 그리스도의 삶 속으로의 몰입”(spiritual identification with and immersion into the life of Christ)을 가리킨다고 주석하고 있다.<sup>39)</sup>

따라서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옛 사람의 죽음에 이르렀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지닌 영적 존재로서 끊임없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에 들어감을 의미한다. 이렇게 세례의 의미 가운데 하나인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리스도인이 그를 닮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sup>40)</sup> 그래서 웨인 그루뎀(Wayne Grudem)은 “신약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의 모든 행동에서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애쓰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

38) James Montgomery Boice, *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 Vol 10, (Romans-Galatians),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76), p. 468.

39) John F. MacArthur, *The MacArthur New Testament Commentary: Galatians*, (Chicago: Moody Press, 1987), p. 98. 갈 3:27절과 유사한 구절인 롬 13:14절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입고”라는 표현도 칭의와 성화를 동시에 표현한 것으로 존 스톱트(John Stott)는 “로마서에서 이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해야 하는, 혹은 계속해서 해야 하는 어떤 것이다... 우리가 입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 그 분을 꼭 붙잡고 주님으로서의 그 분이래 사는 것이다”라고 주석하고 있다. *The Message of Romans* 「로마서 강해」, 정옥배 역, IVP, 1996, p. 472.

40) Wayne Grudem, *Systematic Theology: An Introduction to Biblical Doctrine*,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4), p. 845.

다.<sup>41)</sup>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닮는다고 하는 개념은 ① 거룩함(벧전 1:15-16)과 ② 사랑(마 5:43-48, 눅 6:36, 요 13:34, 15:12) ③ 고난(마 16:24-25, 막 10:38-39, 눅 14:27, 요 15:18-20, 벧전 2:18-21)에 적용되어 질 수 있는데, 그리스도를 닮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뜻이며(빌 2:5),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풍성히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로서, 옷이 그것을 입고 있는 사람을 감싸고 그의 외모나 생활을 나타내듯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가는데 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또한 이 세례는 예수님 안에 거함을 확인시켜주므로 계속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그리해서 그 삶에 풍성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열매를 맺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진다(요 15:5). 더 나아가,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므로 새 사람으로 부활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 들어감(고전 12:13)을 의미하며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사귄에 참여하게 됨을 의미한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세례를 받는 것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영을 좇아 행하고(롬 8:4-5, 갈 5:16), 사랑에 따라(롬 14:15), 믿음에 의해(고후 5:7), 하나님께 합당하게(살전 2:12, 고전 7:17)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으로(살전 4:1, 빌 3:17)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다. 이와 같이, 세례는 죄에서 돌이켜 복음을 받아들이는 상징적인 표현(행 2:38, 8:26-38)으로 이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은 보증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그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새로운 삶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41) bid.

이렇게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필요한 성령의 은사와 초자연적인 능력을 부여받게 되며 진다(롬 15:18).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는 세례와 성령의 은사가 결부되어있음을 언급하고 있는데 브루스(F. F. Bruce)는 “38절에 약속된 성령의 은사는 회개하고 세례받은 자들에게 임하시는 성령 자신이다”라고 말하고 있다.<sup>42)</sup> 존 스토틀(John Stott)는 여기에 성령의 선물은 택한 백성들을 “중생시키시고 그들 안에 내주하시며 그들을 연합시키고, 그들을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sup>43)</sup>

앞서 언급한 내용들을 고려해 볼 때, 본문에서 세례를 주라고 한 것은 단순히 의식적인 세례형식을 갖추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활이 영적인 변화와 도덕적인 갱신의 자리에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하라는 분부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의 전 생애를 통하여 끊임없이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이다. 즉 삼위 하나님과의 더욱 온전한 연합과 교제의 자리로, 그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깊이 체험하는 자리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신령한 교제를 든든히 하는 이런 자리에 계속해서 나아가야 할 것이고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일에 진보와 성장이 있어야 하며,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데 이르게 되어져야 한다(엡 4:13). 리전트 대학(Regent College)의 전도학 교수였던 마이클 그린(Michael Green)은 교제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인 회중의 교제가 다른 사회

에서 찾을 수 있는 교제보다 훨씬 더 훌륭하지 않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목이 터지도록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말할 수 있지만, 사람들은 그들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일상생활이 너무나 매력적이며 따뜻하다면, 밖의 사람들이 그 분에게로 나아올 것이다. 그 곳에 목회자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말이다. 지도자로부터 끊임없이 주사를 맞지 않아도 전도사역은 계속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몸의 생명이 필요하고 고독한 사람들에게 흘러내려가기 때문이다. 그와 같이 교회는 1세기의 교회가 그랬듯이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도 우리가 그와 같은 교회를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자. 그런 교회는 성령이 사역과 사람들을 동시에 통제할 때, 성도들 간에 상호간의 신뢰가 돌우어질 때, 그리고 성도들의 은사가 인정될 뿐 아니라 충분히 사용될 때 생긴다.”<sup>44)</sup>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서는 본문에서 세례를 거행하는 형식 혹은 유형의 문제에 국한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례의식이 상징하는 변화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따라서 세례를 주는 이 단계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단순한 입문(入門)행위로 이해되어서는 아니 되며, 미래를 향한 전진의 시작으로서 지속적인 성장으로 나아가야 함을 일깨워 주고 있다. 더 나아가, 세례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내적인 헌신을 외적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이런 지속적인 헌신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 3) 가르쳐 지키게 하는 단계(실천과 변화에 초점을 맞춘 지속적인 양육의 과정)

앞서 논의한 두 번째 단계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이루

42) F. F. Bruce, *The Book of the Acts,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Revised Edition, (Grand Rapids: Eerdmans, 1988), p. 71.

43) John Stott, *The Spirit, The Church, and The World: The Message of Acts*, (Downers Grove, Ill.: InterVarsity Press, 1990), p. 78.

44) 홍성철 편집, 「전도학」, 도서출판 세복, 2006, pp. 338-339.

어지기 위해서는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제공되어야 함을 마 28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다. 이것은 양육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골 1장 28절에서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고 이 마지막 단계의 중요성과 그 목적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래서 모티머 아리아스(Mortimer Arias)와 알란 존슨(Alan Johnson)은 “만일 우리가 마 28:16-20을 오늘날의 선교를 위한 패러다임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복음화는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교육에 집중해야만 한다. 선교와 교회의 사역에 있어서 전도와 기독교 교육이 별개의 것이라는 생각을 어디에서 얻었는가! 지상명령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이 단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sup>45)</sup>

본문에서 “가르쳐”라는 단어는 현재분사로서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가르침과 배움의 단계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암시해주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의미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가르침 즉, 인격의 변화와 삶과 사역의 현장에서의 실천과 적용에 초점을 맞춘 독특한 성격의 가르침을 요구하고 계심을 볼 수 있다. 원래 헬라어 “가르치다”(didasko)는 단어는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것을 받아들이게 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sup>46)</sup> 그러므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을 받는 자가 가르침의 내용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45) Mortimer Arias and Alan Johnson, *The Great Commission: Biblical Models for Evangelism*, (Nashville, TN.: Abingdon Press, 1992), p. 19.

46) Colin Brown, *The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New Testament Theology*, Vol. 3,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78), p. 759.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분부하신 것은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sup>47)</sup> 헬라어 “지키다”(tereo)는 단어는 유의하다(have in view), 인식하다(perceive), 보존하다(Preserve), 복종하다(obey), 따르다(follow) 보호하다(guard) 등의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sup>48)</sup> 주된 두 가지 의미는 보존(preservation)과 준수(observance)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렌스키(R. C. H. Lenski)는 마 28장 20절에서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순종하고 보존해야 한다는 뜻이다. 깨뜨리지 않고 보존하며 지키라는 것이다. 그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그대로 영접하여 믿음으로 동화시키면 그의 교훈은 이후로 온 인격과 생활을 지배하고 형성할 것이다”라고 주석하고 있다.<sup>49)</sup> 이와 같이, 보존과 준수는 수레의 두 바퀴 같아서 한 요소가 상실될 때 다른 한 요소가 온전히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므로 가르침의 사역은 이 두 요소가 양립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 나가야 함을 깨우쳐 주고 있다. 사도 바울이 딤후전 6장 14절에서 디모데를 향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tereo)”고 언급한 것에 대하여도 렌스키는 “디모데가 모든 교훈을 지키고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그 교훈을 받을 때처럼 점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것으로 남아 있게 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sup>50)</sup>

47) 헬라어 성경 본문에서 “지키게하라”는 현재부정사로 계속해서 지키게 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48) Colin Brown, op. cit., pp. 132-133.

49) R. C. H. Lenski, *The Interpretation of St. Matthew's Gospel* 「마태복음, 하」, 문창수 역, 백함출판사, 1974, p. 530.

50) R. C. H. Lenski, *The Interpretation of St. Paul's Epistles to Timothy, Titus, and Philemon*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장병일 역, 백함출판사, 1979, p. 230.

그러므로 가르침의 내용을 먼저 잘 보존하게 되어질 때 보존되어진 내용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그 삶과 사역에 적용과 순종이 이루어지게 됨을 볼 수 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는 눅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의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의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고 인간의 삶은 그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가에 따라 좌우되어짐을 지적해 주셨다.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Dallas Willard)는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이 거의 대부분 행동을 지배한다는 사실이다. 마음의 내용이 기분의 상태를 정하고 다시 거기서 행동이 흘러나온다. 선택 가능한 여러 행동 대안들도 마음이 생각해 내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sup>51)</sup>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효과적인 기독교 교육과 양육을 위해서는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먼저 마음속에 채우고 잘 보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시편의 서론이요 으뜸가는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시편 1편에서 복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하는 언급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먼저 보존하는 것의 중요성을 암시해 주고 있다. 왜냐하면 마음에 보존되어 있는 말씀이라야 주야로 어떠한 환경과 장소에서라도 묵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잠언 4장 4절에서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보존과 준수의 연관성을 언급하고 있으며, 시편 119편의 시인은 11절에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라고 마음속에 말씀의 보존이 삶을 지키고 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을 밝혀주고 있으며, 시편 18편 21절에서 다윗은 “이는 내가 여호와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

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라고 고백하였으며, 시 40편 8절에서는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을 볼 수 있다.<sup>52)</sup>

달라스 윌라드(Dallas Willard)는 그리스도인의 사고생활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가장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은 성경의 핵심 부분들을 생각 속에 끌어들이어 사고의 영구적 부품으로 편입시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사고생활의 중심 훈련이다. 우리는 성경의 핵심 부분들을 손바닥처럼 훤히 알 필요가 있다. 좋은 방법은 성구를 암송해 삶의 사건과 상황을 통과할 때마다 계속 머릿속에 되새기는 것이다”라고 보존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sup>53)</sup>

그 다음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내용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으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모든 복음의 내용들을 포함하여 신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sup>54)</sup> 그러므로 가르치는 사역에 부름받은 자는 단순히 복음의 일부분이나 성경의 일부분만을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아니 되며,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행 20:27)”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단 기간에 하나님의 특별 계시 전체를 가르치고 전달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신구약 66권의 성경들은 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한 권의 책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철저히 가르치고 전수한다면 성경 전체를

52) 말씀의 보존과 준수에 관련된 성경구절들은 다음과 같다: 신 6:6-9, 11:18-21, 30:14, 32:46, 왕상 8:61, 9:4, 시 119:34, 93, 잠 3:3, 4:23, 말 2:2, 눅 2:19, 8:15, 요 13:2, 골 3:16, 약 1:21, 히 10:16,

53) Dallas Willard, op. cit., 2002, p. 113.

54) Kenneth L. Gentry, Jr., *The Greatness of the Great Commission*, (Tyler, Texas: Institute for Christian Economics, 1990), pp. 69-71.

51) Dallas Willard, op. cit., 1997, p. 324.

가르치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영성개발과 교회성장을 위한 이 마지막 단계의 사역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때에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 자에게 ① 전인적인 변화와 영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시 119:104,127-128,163, 행 2:42-47, 4:32-37, 벧전 2:1-2), ② 상시적(常時的)인 말씀의 해석과 적용이 가능하게 되며(행 1:15-26, 2:14-36, 요 2:19-22, 7:37-39, 21:21-23), ③ 사역의 승리와 전수(傳授)가 성취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행 6:7, 엡 6:10-20, 답후 2:1-2).

#### 4. 영성개발과 교회성장의 직접적인 목표

(Direct Purpose of Spirituality Development and Church Growth)

주님의 지상명령의 핵심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다(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헬라이어 원문 성경을 보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이 주동사로 나타나고 있고,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은 분사형태로서 제자삼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과 방법으로서 주어진 것임을 알 수가 있다. 즉 제자삼는 그 일을 위하여 가고, 세례를 주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다. 로버트 콜만(Robert E. Coleman)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자삼는 사역에 동참해야 한다. 목사이건 평신도이건 차이가 없다.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모든 제자는 다 주님의 사역하는 종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는 사람은 만인제사장설을 부인하는 사람과 같다” 라고 말한바 있다.<sup>55)</sup>

55) Robert E. Coleman, *The Mind of the Master* 「주님의 마음」, 노병욱 역, 두란노서원, 1988, p. 7.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연구하면서, 모티머 아리아스(Mortimer Arias)와 알란 존슨(Alan Johnson)은 “지상명령에 의하면, 제자도 없는 전도(evangelism without discipleship)는 신약적인 의미에 있어서 전도가 아니다”라고 전도에 있어서 전도 대상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게하는 것을 직접적인 목표로 삼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sup>56)</sup> 그러면 어떤 유형의 제자를 양성해야 하는가? 신약성경에 제자라고 하는 말은 “마세테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제자라는 말은 최소한 5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sup>57)</sup>

첫 번째로 제자라고 하는 말은 믿는자(Believer)라는 의미를 지닌다. 행 2:41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삼천이나 더 하더라” 이렇게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의 복음 메시지를 받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을 즉시로 “제자”라고 불렀던 사실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제자라고 하는 이 말의 기본적인 뜻은 “믿는자”라는 뜻이다. 영원한 멸망과 죽음과 죄악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요 10:28, 11:25, 14:6, 행 4:12),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의 최초 선교서신인 살전 1장 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공동체의 믿음의 역사를 살전 1장 9절에서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참된 믿음은

56) Mortimer Arias and Alan Johnson, op. cit., p. 20.

57) 제자의 5가지 의미에 대한 부분은 2002년에 출판된 “기독교 교육기관의 사명과 역할”(고신대학교 출판부)에 기고한 “기독교 대학에서의 교수의 역할과 사명”이라는 본인의 논문의 내용 중 일부를 본고의 필요에 따라 수정한 것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그 결과로 유형무형의 모든 우상들에서 떠나게 되어짐을 암시해 주고 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믿음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보상을 믿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다(히 11:6).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계속하여 자라갈 수 있어야 한다. 주님께서 요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리라”고 말씀하셨고 요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 이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두 구절들에서 “믿는자”는 원문상으로 현재 능동태분사로서 “계속해서 믿는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로 제자의 의미는 배우는 자(Learner)라는 뜻이다. 행 2장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고 오순절 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던 3천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은 즉시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배우는 자로서의 모습을 가졌던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 주님께서도 마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쉬을 얻으리니”라고 계속해서 배워야 할 것을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베드로 사도도 그의 마지막 서신의 말미에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벧후 3:18)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되어가야 함을 강조하는데, 그리스도인은 평생 배우는 과정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자임을 밝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참된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권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평생의 삶을 통하여 계속 체험하고 배워가는 자가 되어져야만 한다.

따라서 타스커(R. V. G. Tasker)는 “제자는 이미 학습을 마친 자가 아니라 항상 배우고 있는 자이다. 그리스도인의 학창시절은 결코 끝나는 법이 없다”라고 말을 한바 있으며,<sup>58)</sup> 달라스 윌라드(Dallas Willard)는 “예수의 제자란 곧 그분과 함께 있어 그분으로부터 그분 처럼 되는 법을 배우는 자를 뜻한다”라고 말한바 있다.<sup>59)</sup> 세계적인 기독교 교육학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는 미국의 달라스 신학대학원의 하워드 헨드릭스 박사(Howard G. Hendricks)도 “만일 내가 오늘 성장하기를 멈춘다면 내일 가르치기를 멈추게 될 것이다”라고 말함으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자신이 먼저 끊임없이 배우는 자가 되어져야 함을 강조한바 있다.<sup>60)</sup> 그는 지능지수(Intelligence Quotient)보다 동기지수(Motive Quotient)가 높은 학생이 학습의 성취도가 더 높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신약성경이 말하는 제자는 그분으로부터 자신의 삶-어떤 분야의 삶이든-을 배우되 그분이 친히 사실 것처럼 사는 법을 배우기로 굳게 결심한 자이다.”<sup>61)</sup>

세 번째로 제자는 “따르는 자”(Follower)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눅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고, 마 16장 24절에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주님의 제자임을 밝히면서, 주님을 따르는 자는 마땅히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알버

58) R.V.G. Tasker, op. cit., p. 277.

59) Dallas Willard, op. cit., 1997, p. 276.

60) Howard G. Hendricks, *Teaching to Change Lives*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 정명신역, 생명의 말씀사, 1992, p. 17.

61) Dallas Willard, op. cit., 1997, p. 291.



트 그린(Albert E Greene Jr)박사는 “우리는 우리의 부족을 주님으로 채우려고 하는 대신 창조물 안에 있는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sup>62)</sup>

이 따르는 자는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한 자기 사명을 발견한 제자를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다. 영성개발과 교회성장을 위해 부름 받은 사역자는 그의 사역 대상자들 개개인이 부여받은 은사가 무엇인 것을 발견하여 그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끌어 줄 수 있어야 한다.

바울이 예수님 이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역의 발자취를 남긴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자기 사명을 가장 정확하게 인식하고 결단할 줄 아는 사람이고 그 사명의 길로 끝까지 즐거움으로 달려 나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행 20장 24절에서 “나의 달려 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자신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었고,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아니할 정도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 사명에 충성하는,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다.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라는 책을 쓴 스위스의 사상가 칼 헨티는 말하기를 “인간 생애의 최고의 날은 자기 인생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라는 말을 한바가 있다. 이와 같이 자신이 이 땅위에 왜 주어졌는가? 하는 자기존재의 의미와 자기사명을 깨닫게 될 때 그 인생의 삶이 놀라움게 변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사명을 깨달을 때에 진정

한 의미에 있어서 열심을 가지고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어 지므로 교회의 사역자는 이 사명을 일깨워 주는 자가 되어져야만 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롬 14:8)고 가정생활을 하는 것도 주를 위하여 가정생활을 하고, 직장생활, 사업생활, 연구생활, 학업생활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사명자를 배출해 내는 것이 제자사역의 목표가 되어져야 할 것이다.

네 번째로 제자는 사랑하는 사람(Lover)을 의미한다. 요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줄 알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사랑을 그 삶 속에 실천하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라는 의미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론 킨케이드(Ron Kincaid)는 그의 책 “제자삼는 교회”에서 “새 계명은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전략이다. 새 계명에 대한 헌신이 없다면 지상명령의 성취도 없을 것이다”라고 이것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sup>63)</sup>

교회 사역자와 봉사자들이 아무리 전문적인 지식으로 무장되어 있고, 사역 능력이 탁월하다고 할지라도 사랑의 중심에서 사역하고 봉사하지 못한다고 할 때 그 모든 사역은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면서 사역할 때 비로소 이런 사랑을 그 삶 속에서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을 양육해낼 수가 있을 것이다. 진리를 가르치고 전하는 것도 사랑 안에서 할 때에 그 진리가 진리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에 엡 4장 15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62) Albert E. Greene, *Reclaiming The Future of Christian Education: A Transforming Vision* 「알버트 그린 박사의 기독교 세계관으로 가르치기」, 현은자의 역, CUP, 2000, p. 246.

63) Ron Kincaid, op. cit., p. 103.

(speaking the truth in love)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알버트 그린은 “그리스도인 교사의 마음과 가슴에 사랑이 없다면 학생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깊은 사랑을 경험케 하거나, 그들이 공부할 때 기독교적인 삶의 성장을 경험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sup>64)</sup> 또한 그는 사랑과 배움과 가르침은 모두가 함께 속한 것임을 말하면서 “교사들은 학생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뿐만 아니라 창조된 과목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때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된다. 학생들은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과 공부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울 때, 그들은 진정으로 배울 수 있게 된다”고 적절히 언급하고 있다.<sup>65)</sup>

오늘날 이혼하는 부부가 얼마나 많은가? “왜 이혼합니까?” 물어보면 “성격이 안 맞아서”라고 대답하지만 사실은 희생하는 사랑, 이해하는 사랑, 용서하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의 본질이 어떠한 것인지 고린도전서 13장이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사랑 없이는 방언이나 신비한 지식이나, 그리고 믿음조차도 아무 가치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신앙 공동체인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구성원들이 이 아가페의 사랑을 느끼고 나누고 실천하는 장(場)이 되어야만 한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것을 배울 수 있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고 도와주는 것으로 서로를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게 함으로 각자가 가진 독특한 은사와 재능을 개발해 나가는데 서로 서로가 도움과 격려가 되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 번째로 제자는 스승을 닮은 자이다(Imitator).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인들을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때가 되매 불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예정과 선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이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고 그리스도인들을 예정하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 고후 3:18절에서는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Transformation)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다.

마태복음 10장 24절과 25절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이렇게 제자가 주님을 닮은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의 목적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골 1:28)라고 말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제자를 염두에 두고 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신 것은 성령이 충만하여 그 삶 속에 성령의 9 가지 열매를 풍성히 맺는 제자가 주님을 가장 많이 닮은 자가 될 수 있겠기에 성령 충만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상 성령의 9 가지 열매를 가장 풍성하게 맺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기 때문이다.

실제로 예수님만큼 성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빌 2:8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하였는데, 이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심으로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주님이셨던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예수님만큼 기쁨이 충만했던 분이 누가 있겠는가? 누가복음 10:21

64) Albert E. Greene, op. cit., p. 271.

65) Ibid., p. 290.

절에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 이렇게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열매를 충만히 맺으셨던 분이셨다. 그리고 예수님만큼 그 마음에 하늘의 평화가 넘쳤던 분이 어디에 있겠는가? 요 14:27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고 말씀하셨던 주님이셨다.

또한 예수님만큼 오래 참으신 분이 누가 있겠는가? 누추하고 더러운 인생들이 하나님인 예수님을 조롱하고, 갈대로 머리를 치고,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며 희롱하고, 온갖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택한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 받으심으로 오래 참으심의 열매를 온전히 맺으신 것을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예수님처럼 자비하신 분이 어디에 있겠으며 예수님처럼 온 인류를 위하여 선을 행하신 분이 또 어디에 있겠으며, 예수님과 같이 받은바 그 사명에 신실하시고, 충성한 분이 어디에 있겠는가? 예수님처럼 온유하신 분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주님은 마 11:29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자신의 인간적인 욕망을 절제하시고, 자신을 통제하실 수 있었던, 이런 절제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신 분이 또 누가 있겠는가? 21세기 미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작가이면서 가장 영향력있는 저자 중 한 사람인 맥스 루카도(Max Lucado) 목사가 쓴 “예수님처럼”(Just like Jesus)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그는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신다” 라는 말을 한바가 있다.<sup>66)</sup>

66) Max Lucado, *Just Like Jesus* 『예수님처럼』, 윤종석 역, 복있는 사람, 1999, p. 15.

오늘날 우리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부정부패와 여러 가지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도덕과 윤리가 타락되고 병들어가고 있는 그 가장 큰 이유가 교인은 많은데 예수님의 참 제자가 너무도 적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러므로 교회와 그리스도인 가정이 존재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며, 모든 그리스도인 구성원들이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성장해 가는 양육과 훈련의 요람이 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분부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성숙한 제자들을 양육하여 배출하는 것이 변함없는 기독교 사역의 직접적인 목표가 되어질 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신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님 오실 때까지 누리게 될 것이며, 주님께로부터 쓰임받는 기관과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영성개발과 교회성장의 직접적인 목표인 제자삼음의 대상은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마 28장 1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라고 말씀하심으로 모든 족속이 그 대상임을 밝혀 주셨다. 마 28장 19절의 “모든 족속”에서 “족속”이란 “에스네”(중성 복수 대격)라는 헬라이어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정치적 또는 지리적 구분이 아니라 동일한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종족집단(people group)을 뜻하는 단어이다.

신약에서 단수 “에스노스”는 절대로 개인을 가리키지 아니하고 민족적 정체성을 지닌 어떤 “종족 집단(a people group)” 혹은 “족속(nation)”을 가리킨다.<sup>67)</sup> 그러나 복수 “에스네”는 더러는 “이방인 개인들(Gentile individuals)”을 가리키며 단수와 마찬가지로 자주 “종족 집단들(people groups)”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sup>68)</sup> 특

67) John Piper, op. cit., pp. 174-175.

68) Ibid., p. 180.

히 “모든 족속(판타 타 에스네)”이라는 어구가 헬라이어 구약성경에 약 100번 정도 나타나는데 단 한번도 “이방인 개인들”이란 의미로서는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언제나 “이스라엘 밖에 있는 종족 집단들”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다.<sup>69)</sup> 그러므로 마 28장 19절의 “모든 족속(판타 타 에스네)”라는 어구도 “모든 종족 집단”으로 보아야 할 가능성이 절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종족집단(people group)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종족집단(people group)이란 언어, 종교, 인종, 주거, 직업, 계급이나 계층, 처지 등이나 이것들이 결합된 것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그들 스스로가 상호간에 공동의 유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개인들의 상당히 큰 집단 ... 복음전파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나 수용의 장벽에 부딪히지 않고 교회개척을 통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가장 큰 집단을 뜻한다.”<sup>70)</sup> 그러므로 종족집단이란 한 국가 내에서 자신들의 고유한 언어를 사용하는 구별된 동종의 집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랄프 윈터(Ralph Winter)는 이런 언어 집단(people groups)을 24,000개로 추정하고 있으며, 패트릭 존스톤(Patrick Johnstone)은 인종언어학적 종족(ethno-linguistic groups)이 12,017개라고 말하고 있다.<sup>71)</sup>

결론적으로 마 28장 19-20절의 대사명의 모든 족속(판타 타 에스네)이란 “모든 이방인 개인들(all Gentile individuals)” 또는 “모든 나라들(all countries)”이란 의미가 아니고 “세상의 모든 종족집단(all the people groups of the world)”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sup>72)</sup> 따라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보내실 때에 그제 일반적인 사명을

주셔서 가능한 한 한 사람이라도 더 얻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종족들에게 이르러 흠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음으로 불러내어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것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교회의 선교사명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모든 미전도 종족들<sup>73)</sup>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므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각 방언과 족속과 나라에서 불러내어 제자들 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계 5:9). 그러므로 마 28장 19절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은 적어도 한 종족집단에서 최소한 몇 사람이라도 제자가 되기 전까지는 선교사명이 완수되었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 오늘날의 선교학자나 지도자들은 자신의 종족집단을 복음화 할 수 있는 현지인 교회가 있으면 이 집단은 전도되었다(reached)고 정의한다.<sup>74)</sup>

## 5. 영성개발과 교회성장의 계획에 따라 사역하는 자에게 주어진 약속

(Promise for Those who Work according to the Plan of Spirituality Development and Church Growth)

마 28장 20절에 “볼찌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이 마지막 분부를 따라 사역하는 자들에게 부활하신 주

69) Ibid., p. 181.

70) Ralph Winter, “Unreached Peoples: Recent Developments in the Concept,” *Missions Frontiers*, August-September, 1989, p. 12.

71) John Piper, op. cit., p. 206.

72) Ibid., p. 203.

73) “미전도 종족(Unreached people)”의 의미가 무엇인가? 미전도 종족이란 “자신의 종족을 복음화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현지인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는 종족집단”을 뜻한다. Ralph Winter, Ibid.

74) John Piper, op. cit., p. 209. 일반적으로 전도는 그 종족집단 가운데 설립된 교회를 중심으로 그 지역의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계속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나 선교는 미전도 종족집단에게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에 중점을 두는 사역이다.

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셨다. 분부하신 지상명령의 중대한 내용과 범위를 유한된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제대로 감당해 나가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하신 주님께서서는 “볼찌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역 수행을 위한 원동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위대한 약속에 시선을 집중하면서 그들이 직면할 수 있는 어떠한 난관 가운데서도 이 사역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헬라이어 원문에 “내가”(ego)라는 1인칭 대명사가 포함되어진 것은 강조용법으로 “나 자신이 친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주님은 이 사역을 명령만 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자신이 친히 이 명령이 성공적으로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겠다는 놀라운 보장의 약속인 것이다. 주경 신학자 렌스키(R. C. H. Lenski)는 “주님은 그의 제자들을 모든 족속에게 외로이 보내시지 않는다. 주님은 불가시적으로 항상 그들의 옆에 계셔서 그들의 성공을 보장하실 것이다. 이 말씀에서 주님은 온갖 두려움, 낙심, 연약함에 대한 해답을 주셨다”라고 적절히 설명하고 있다.<sup>75)</sup> 캠벨 몰간(G. Campbell Morgan)은 “‘항상’<sup>76)</sup>이라는 말 속에는 맑은 날이나 흐린 날이나, 강건할 때나 연약할 때나, 전투의 날이나 승리의 날이나, 가장 힘들고 지루한 날이나 가장 즐거운 날이나 함께 하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다.<sup>77)</sup>

“세상 끝날까지”라는 말씀은 시간과 세상 역사의 마지막 순간까지

즉, 주님의 재림 때까지 이 사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의 임재를 거두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의미이다. 사실 사도행전의 역사는 바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천상에서 지상의 몸된 교회와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행하시며 가르치시는 사역의 기록인 것을 증거해 주고 있다(행 1:1).<sup>78)</sup> 이 마지막 약속의 말씀은 주님의 지상 교회가 세계 역사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질 것이며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을 암시해 주면서 놀라운 위로와 힘과 소망을 주고 있다. 이와 함께, 영성개발과 교회성장의 사역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에 좌정하신 주님이 영원히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다.

## 6. 결론

(Conclusion)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지상명령(the Great Commission)의 말씀은 일반적으로 선교명령으로만 알려져 왔지만 이것은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구속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신 영성개발과 교회성장의 현장이요 이를 위한 명령의 말씀이기도 하다. 이러한 새로운 관점에서 이 명령을

75) R. C. H. Lenski, *The Interpretation of St. Matthew's Gospel* 「마태복음, 하」, 문창수역, 백함출판사, 1974, p. 531.

76) D. A. Carson은 본문의 “항상”이라는 표현은 “우리의 장래반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각각의 날들 모두를 가리킨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Expositor's Bible Commentary*, Vol. 8,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84), p. 599.

77) G. Campbell Morgan, 「고난 받는 그리스도: 마태복음 강해(하)」, 황영철 역, 이가페, 1988, pp. 349-350.

78) 사도행전 1장 1절의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이라는 구절은 현재 부정사로 표현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당시에 이미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지상에는 계시지 아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록하는 그 시점에도 여전히 예수님은 천상에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하고 있음을 현재시제를 사용하므로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사도행전은 마 28장 20절의 약속대로 천상에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천상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롭게 재조명해 보는 것은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사역자들과 구성원들 모두에게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올바른 성경적인 근거를 발견하여 그 근거 위에서 우리의 사역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초대교회와 같은 놀라운 영성개발과 교회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이 사역에 적용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요약하고 있으며 뒤따르는 모든 그의 제자들이 또한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야 하는 가장 중차대한 사역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와 적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시대의 영성신학자로 널리 영향을 끼치고 있는 달라스 윌라드(Dallas Willard)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영성개발과 교회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지 마는 그 내용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적용에 있어서는 미흡함을 드러내었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 점을 염두에 두면서 5가지 종합적인 요소들(예배, 사랑, 교제, 양육, 전도)을 검토하고 그 정확한 이해와 적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되어진 것이다.

이상의 5가지 요소들 중에 사랑과 교제와 양육의 3가지 요소들은 성숙한 제자를 삼는데 기본적인 핵심요소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사랑이 먼저 주어져야 하며, 이로 인해 마음의 문이 열려질 때 복음제사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고 성장되어짐에 따라 사람들과의 교제도 회복되어지고 심화되어 질 것이다. 이런 단계에 있는 사람이 지속적인 영적 성장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양육이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상의 3가지 요소들은 예배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온전한 예배의 단계에 이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

치는 가운데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며, 이 제자는 그 삶과 사역을 통하여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므로 제자삼는 사역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진행이 되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제시하고 있는 5가지 요소들(예배, 사랑의 실천, 영적 교제, 양육, 전도)은 릭 워렌(Rick Warren)의 5가지 교회의 목적과 일치되어지고 있다.<sup>79)</sup> 그러나 릭 워렌은 교회의 5가지 목적을 대계명(마 22:36-40)에서 예배와 사랑의 실천의 두 요소를 이끌어 내었으며, 대사명(마 28:19-20)에서 교제와 양육과 전도의 나머지 3요소를 이끌어 내므로 두 본문의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본고에서는 이 5가지 요소들이 모두 대사명(마 28:16-20)의 본문에서 내포하고 있음을 밝히게 되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릭 워렌이 언급하고 있는 5가지 요소들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인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영성개발과 교회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가 되어진다는 것이 본고의 중요한 결론이 되어질 것이다. 이와 동시에 영성개발과 교회성장은 불가분리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리스도인 개인의 영성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참된 교회성장이 가능하게 되며, 모든 족속으로 제자삼는 선교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결론이 되어질 것이다.

이상과 같이, 마 28장 16-20절의 내용이 보여주는 영성개발과 교회성장을 위한 주님의 마스터플랜을 따라 가장 효과적으로 사역한 주님의 제자들이 바로 사도들이었고, 초대교회성도들이었다는 사실을 사도행전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증거해 주고 있다. 놀라운 것은 오순절 성령강림의 결과로 이루어진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을 묘사하고 있는 행 2:40-47에서 이미 이 5가지 요소들이 빠짐없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

79) 릭 워렌(Rick Warren)의 5가지 교회의 목적은 그의 저서 *The Purpose Driven Life* 「목적에 이끄는 삶」에서 소개되고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다.

여주고 있다.

특별히, 이런 제자사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갔던 대표적인 사역자를 꼽는다면 사도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의 사역이 이런 효과적인 사역이었기에 그는 순교를 앞두고 기록한 유언과 같은 마지막 서신인 딤후 4장 1절 이하에서 그의 제자 디모테를 향하여 이러한 사역을 향한 마지막 권면을 할 수 있었고, “내가 선택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딤후 4:7)”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음을 볼 수 있다. 과연 사도 바울은 영성개발의 모델이었고(고전 4:15-16), 선교사역의 거장으로서, 가는 곳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감으로 교회 성장과 복음 확장의 위대한 사역을 이루어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성장은 사역자 자신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성숙한 제자가 되게 하므로 그 제자가 다른 사람들을 제자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사역을 교회의 머리되신 주님께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요구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계획을 따라 사역에 임하므로 주님의 약속 그대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의 역사를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한국교회의 사역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 참고도서

- Arias, Mortimer and Alan Johnson. *The Great Commission: Biblical Models for Evangelism*. Nashville, TN.: Abingdon Press, 1992.
- Barnes, Albert. *Barnes' Notes on The New Testament Commentary* (반즈 성경 주석, 마태 마가복음). 크리스찬서적, 1988.
- Blomberg, Craig L. *The New American Commentary: Matthew*. Nashville, Ten.: Broadman Press, 1992.
- Boice, James Montgomery. *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 Vol 10. (Romans— Galatians)*.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76.
- Brown, Colin. *The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New Testament Theology. Vol. 3*.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78.
- Bruce, F. F. *The Book of the Acts,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Revised Edition*. Grand Rapids: Eerdmans, 1988.
- Carson, D. A. *Expositor's Bible Commentary. Vol. 8*.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84.
- Coleman, Robert E. *The Mind of the Master (주님의 마음)*. 노병욱 역, 두란노서원, 1988.
- Gentry, Jr., Kenneth L. *The Greatness of the Great Commission*. Tyler, Texas: Institute for Christian Economics, 1990.
- Green, Michael. *The Message of Matthew (마태복음 강해)*. 김장복 역, IVP, 2005.
- Greene, Albert E. *Reclaiming The Future of Christian Education: A Transforming Vision (알버트 그린 박사의 기독교 세계관으로 가르치기)*. 현은자의 역, CUP, 2000.
- Grudem, Wayne. *Systematic Theology: An Introduction to Biblical Doctrine*.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4.
- Hagner, Donald A. *Word Biblical Commentary: Matthew 14-28. Vol. 33B*. Dallas, Texas: Word Books, Publisher, 1995.
- Hendricks, Howard G. *Teaching to Change Lives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 정명신 역, 생명의 말씀사, 1992.

- Hendriksen, William. *A Commentary on Galatians*. London: The Banner of Truth Trust, 1968.
- Henry, Matthew. *Matthew*. Vol. 3. (마태복음, 하). 기독교문사, 1978.
- Kincaid, Ron. *A Celebration of Disciple-Making* (제자삼는 교회). 생명의 말씀사, 1993.
- Laubach, Frank. *Man of Prayer*. Syracuse, NY.: Laubach Literacy International, 1990.
- Lenski, R. C. H. *The Interpretation of St. Matthew's Gospel* (마태복음, 하). 문창수역, 백함출판사, 1974.
- . *The Interpretation of St. Paul's Epistles to Timothy, Titus, and Philemon*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장병일 역, 백함출판사, 1979.
- Lucado, Max. *Just Like Jesus* (예수님처럼). 윤종석 역, 복있는 사람, 1999.
- MacArthur, John F. *The MacArthur New Testament Commentary: Galatians*. Chicago: Moody Press, 1987.
- McIntosh, Gary L. *Biblical Church Growth*. Grand Rapids: Baker Books, 2003.
- Morgan, G. Campbell. *고난 받는 그리스도: 마태복음 강해(하)*. 황영철 역, 아가페, 1988.
- Morison, James. *A Practical Commentary on the Gospel According to St. Matthew*. London: Hodder & Stoughton, 1899.
- Morris, Leon. *The Gospel According to Matthew*. Grand Rapids: Eerdmans, 1992.
- Murray, John. *Collected Writings of John Murray*. Vol. 2. Carlisle, Penn.: The Banner of Truth Trust, 1977.
- Piper, John. *Let the Nations Be Glad!: The Supremacy of God in Missions*. Grand Rapids: Baker Books, 1993.
- Spurgeon, Charles H. *The Treasury of the Bible* (마태복음, 3). 장부영 역, 보문출판사, 1979.
- Stott, John. *The Message of Romans* (로마서 강해). 정옥배 역, IVP, 1996.
- . *The Spirit, The Church, and The World: The Message of Acts*. Downers Grove, Ill.: InterVarsity Press, 1990.
- Stowell, Joseph M. *The Final Question of Jesus* (열정의 회복). 박해경 역, 디모데, 2004.

- Tasker, R.V.G. *The Gospel According to St. Matthew: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London: The Tyndale Press, 1961.
- Vincent, Marvin R. *Word Studies in the New Testament*. Vol. 1. Grand Rapids: Eerdmans, 1985.
- Winter, Ralph. "Unreached Peoples: Recent Developments in the Concept." *Missions Frontiers*, August-September, 1989.
- Willard, Dallas. *The Spirit of the Disciplines: Understanding How God Changes Lives*. New York: HarperCollins Publishers, 1988.
- . *Renovation of the Heart*. Colorado Springs, CO.: NavPress, 2002.
- 홍성철 편집. *전도학*. 도서출판 세북, 2006.